

1.

2018학년도

인문계열 1회차 해설

인문계열 1회차 공통문항

출제 의도

인간에게 ‘기억(메모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는 오늘날 기억이라는 말은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라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 또한,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 기억을 인간의 신체 중 뇌가 담당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관점도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정보의 저장 및 검색이나 뇌의 기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기억은 없는 것일까? 우리의 기억은 모두 정보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일까? 본 문항은 디지털 기술과 뇌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기억의 문제를 상이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제시문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고안되었다.

제시문 요약

제시문<가> : V. M. Schönberger, 구분권 옮김,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5, 139-140쪽.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가>는 과거와 달리 디지털 시대에는 외부 저장 장치의 도움으로 망각보다 기억이 더 쉬워지고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이제는 외부 저장 장치나 인터넷의 손쉬운 검색 등을 통해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힘들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나> : N. Carr, 최지향 옮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7, 279-286쪽.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나>는 컴퓨터의 메모리와 달리 인간의 기억은 강화를 통해 부단히 갱신되며, 발달된 디지털 매체들에 의존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뇌는 더 산만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집중과 같은 인간에게 고유한 지적 능력은 저하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제시문<다> : H. Bergson,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7, 145-146쪽.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다>는 반복 학습되어 암기된 기억은 개인에게 고유한 기억이 아니라 동일한 지각을 계속 유지하는 습관일 뿐이며, 개인에게 탁월한 기억은 어느 순간 선명하게 다가오는 회상과 같은 우발적 기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발적 기억은 단순히 지각에 의존하는 뇌의 기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억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림> : D. A. Liebermann, 김기중 외 옮김, <학습과 기억>, 교육과학사, 2013, 366-368쪽.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은 인간이 학습한 최초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망각되지만, 반복학습을 통해 망각되는 속도를 늦추고 기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이 보여주는 바처럼, 최초 학습 후 1일이 경과했을 때의 기억량(약72%)과 반복 학습을 한 후 2일이 경과했을 때 기억량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량의 추이를 볼 때, 학습이 반복될수록 기억은 점점 더 오래 지속되고 기억량도 더 증가한다.

문항 해설

■ 논제의 구성

논제는 '기억(메모리)'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달에 대해 상반되는 관점을 보여주는 <가>와 <나>의 논지를 이해하고, 기술의 발달과 무관하게 인간의 고유한 기억을 강조하는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를 비교·평가하여 그 한계를 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 아래 주어진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논제는 다음 세 개의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요약하시오.
- 둘째,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하시오.
- 셋째, <그림>을 활용하시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첫째, <그림>의 요지를 파악한 후, 그것의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 둘째, <가>와 <나>의 논지를 파악한 후 그들 간의 차이를 이해한다.
- 셋째, <다>의 입장을 파악한다.
- 넷째,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한다.

채점 기준

■ 답안 구성 요소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가>와 <나>의 차이를 요약하기

- <가>의 논지: 인간이 어떤 것을 직접 기억할 때보다 디지털 매체에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은 정확성과 효율성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 <나>의 논지: 인간이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면서 기억의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면, 인간의 뇌는 집중과 같은 지적 능력 면에서 퇴화된다.
- <가>와 <나>의 차이: <가>는 인간이 자신의 기억을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나>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메모리의 차이에 근거하여 인간이 디지털 매체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② <다>의 입장을 파악하기

- 반복 학습에 의해 형성된 습관적 기억과 불현 듯 떠오르는 회상과 같은 우발적 기억은 질적으로 다르다.
-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은 습관적 기억이 아니라 우발적 기억이다.
- 우발적 기억은 인간이 아닌 외부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고 검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뇌의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③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하기

- <가>의 주장대로 과거에 비해 디지털 시대에는 반복 학습을 통한 기억의 중요성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다>는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고 검색되는 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한 추억과 같은 우발적 기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비판할 것이다.
- <나>가 인간의 기억과 디지털 매체의 메모리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신경생물학적인 뇌의 작용에 의존해 인간의 기억을 설명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을 뇌의 기능으로 보지 않는 <다>는 <나>가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 <다>는 <가>와 <나>가 모두 우발적 기억과 같은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④ <그림>을 활용하기

- <그림>은 인간의 기억이 반복 학습을 통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가>는 디지털 메모리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림>이 보여주는 반복 학습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고, <나>는 컴퓨터 메모리와 전혀 다른 인간의 뇌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림>에 보여주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 <그림>은 <다>가 주장하는 우발적 기억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므로, <다>가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할 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시 답안

과거에는 기억보다 망각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인간은 반복 학습을 통해 기억을 오래 보존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가>는 기억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그림>이 보여주는 반복 학습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외부 저장 장치나 인터넷 검색의 도움으로 인간 스스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나>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디지털 매체에 수동적으로 의존할수록 집중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저하된다고 본다. 이 점에서 <가>와 달리 <나>는 <그림>이 보여주는 반복 학습이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며,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기억하려는 활동을 통해서만 인간의 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갱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는 반복 학습에 의한 기억을 개인의 고유한 기억이라고 보지 않고 우발적 기억을 강조한다. 비록 <가>의 주장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그림>처럼 반복 학습을 통한 기억이 불필요해졌다고 하더라도, <다>는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한 추억과 같은 우발적 기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비판할 것이다. 또한, <나>는 <그림>의 반복 학습이 디지털 시대에도 뇌의 강화를 위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와 입장이 다르다. <나>가 인간의 기억과 디지털 메모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가 <가>보다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신경생물학적인 뇌의 작용에 의존해 인간의 기억을 설명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고유한 우발적 기억을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가>와 <나>는 외부 디지털 매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반되지만 둘 다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이들이 모두 인간의 기억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인문계열 1회차 계열문항

출제 의도

인문계열 1회차 계열논술 문항의 주제는 '소수자 문제'이다. 소수자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당면 과제다. 신체, 인종, 성별, 계급, 나이, 지역, 성적 지향 등등 다양한 기준의 소수자들과 함께 공존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소수자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소수자들은 특별하거나 낯선 존재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나름의 소수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소수자들 또한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내부를 바꾸며 주위도 바꾸어가는 작은 혁명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본 문제는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파악하고, 그 인식 내용을 통해 소수자 자신의 자각을 통한 정체성 확인의 의의를 제대로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제시문 요약

<가>: 윤수중,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학사, 2002)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의 서문이다. 소수자들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현대 사회에는 더욱 다양한 소수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소수자는 숫자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소수자들은 권력을 지닌 다수자와 국가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특징을 지니며, 따라서 소수자들이 다수자와 투쟁하는 것은 소수자 운동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소수자들은 자신의 내부를 바꾸고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주위를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운동의 움직임을 보인다. 소수자적 특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작은 혁명들을 통해 위로부터의 거대한 획일화 강요에 맞서고 표준화된 틀을 해체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 진은영, 「소수자, 우리는 어디에서 그들과 마주치는가?」(고병권 편, 『R 소수성의 정치학』, 그린비, 2007)

제시문 <나>는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방향성을 주창한 잡지에 수록된 선언적 단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정의에 따르면 다수자와 소수자는 숫자나 양이 아니라 표준의 결정이자 지배적 상태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항상 표준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독특성을 지니기에, 실은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는 특별한 어떤 인물이나 계층, 어딘가에 숨어 있는 낯설고 드문 이가 아니다. 소수자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순간을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이다. 미국의 코미디 배우 피터 로르의 에피소드는 만인의 소수자성을 증명하는 일례다. 매커시즘 광풍이 엄습한 1950년대 초반, 피터 로르는 연방수사국의 폭로 압박에 대해 사상적으로 수상한 인물은 “내가 알고 있는 모두 다!”라고 대응하였다. 이는 지배 체제가 정한 ‘건전성’이라는 자의적 표준을 조소하는 행위이자 ‘소수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소수성의 철학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대처였다.

<다>: 김미선, 「깊은 우물」(윤수중 역음,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문학들, 2014)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쓴 장애인 소설의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내용이다. ‘나’는 약수터를 오가는 길에 이웃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마저 꺼릴 정도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20대의 장애인 여성이다.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박명화라는 여성의 소개를 받아 마지못해 참석한 장애인 대학생 모임 ‘샘물회’에서 ‘나’는 뜻밖으로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특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어인 ‘부실’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오히려 서로를 호칭하는 유머로 사용하며 카타르시스를 나누는 광경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나’는 처음의 서먹함을 넘어 모임의 열띤 분위기에 고무되어 그들과 끈끈한 친밀감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부실인간이라 차별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장애라는 결핍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점차 눈뜨게 된다. ‘나’는 차별과 비하, 자기소외 등으로 축적된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벅찬 기분으로 고양된다.

문항 해설

■ 논제의 구성

본 논술문항의 주제는 '소수자 문제'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소수자 혹은 소수자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글이며, 제시문 <다>는 소수자 당사자가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소수자를 소외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게 되는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를 통해 설명하시오. (1000±100자)

논제는 제시문 <가>와 <나>의 소수자 인식을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고, 제시문 <다>의 소설에서 등장인물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자의 자기 정체성 찾기, 즉 '소수자되기'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환기할 수 있도록 논제가 고안되었다.

논제는 다음의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시오.

둘째, <다>의 소설 속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을 밝힌다.

둘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밝힌다.

셋째,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넷째,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를 통해 설명한다.

채점 기준

■ 답안 구성요소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답안은 구체적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파악

둘째,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셋째, <다>의 '나'의 심리 변화 내용 파악

넷째, <다>의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가>와 <나> 내용에 근거해 설명

*답안은 다음의 세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가>와 <나>의 소수자 혹은 소수성에 대한 인식 파악

1) <가>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 소수자는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적으로 다수인 사람들도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권력을 독점당한 채 주변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수자들은 권력을 지닌 다수자와 국가권력으로부터 배제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수자들이 다수자와 투쟁하는 것은 그 때문이며, 이것은 소수자 운동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 하지만 이제 소수자들은 다수자와의 큰 싸움만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작은 운동에도 주력한다. 자신의 내부를 바꾸면서 사회도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소수자 운동이 대두되고 있다.
- 소수자적 특성을 기꺼이 수용하는 '소수자되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틀을 거부하는 새로운 작은 혁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2)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 틀뢰즈와 가타리의 다수성에 대한 정의는 수나 양이 아니라 표준의 결정과 지배의 상태에 기초한다.
- 따라서 소수자는 드물고 낯선 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 배우 피터 로르의 일화는 표준화를 강요하는 지배 권력의 억압에 대한 지극히 현명한 대처였던 동시에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는 소수성의 철학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일례이다.
- 모든 사람들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나름의 독특성을 지니며,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는 우리들 자신이다.

② <가>와 <나>의 소수자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1) <가>와 <나>의 소수자 인식의 공통점

- 첫째, 소수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수자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과 지배 상태의 문제이며, 따라서 수적으로 다수인 사람들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와 <나>는 공유한다.
- 둘째, 소수자는 권력의 표준화·획일화 요구를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가>의 소수자는 권력에 포획되기를 거부하고 작은 혁명을 만들어 나가며, <나>의 소수자는 피터 로르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권력에 저항한다.

2) <가>와 <나>의 소수자 인식의 차이점

- 첫째, <가>는 소수자와 다수자를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나>는 모든 사람은 소수자라는 인식에서 다수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가>는 소수자 및 다수자의 범위 설정이 가능하지만 <나>는 범위 설정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 둘째, <가>는 소수자의 집단적 정체성, 즉 '소수자되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 <나>는 소수자 모두가 공유하는 개인의 실존적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③ <다>의 '나'의 심리 변화 내용 파악

- 제시문 <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쓴 장애인소설의 일부이다.
- '나'는 이웃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마저 꺼릴 정도로 위축된 삶을 살아가던 20대 장애인 여성이다.
- 박명화의 소개로 마지못해 참석한 장애인 대학생 모임 '샘물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어 '부실'을 오히려 서로를 호칭하는 유머로 사용해 카타르시스를 나누는 광경에 '나'는 충격을 받는다.
- 자신들의 결핍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되레 드러냄으로써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나' 또한 같은 장애인으로서의 친밀감·유대감을 공유하게 된다.
- '나'의 내면에는 장애인을 부실인간이라고 차별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또한 싹트게 되고, '나'는 차별과 비하, 자기소외 등으로 축적돼 온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벅찬 기분을 맛보게 된다.

④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미를 <가>와 <나> 내용에 근거해 설명

1) <가>에 의거해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미 설명

- <다>의 '나'가 샘물회 모임 참가를 통해 장애인으로서의 유대감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은 소수자들이 자신들에게 그간 결핍으로 여겨졌던 소수자적 특성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는 <가>의 내용에 부합한다.
- 그간의 위축된 마음을 넘어서 상처가 치유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싹트게 되는 <다>의 '나'의 내면 변화의 과정은 <가>의 '소수자되기'를 통한 작은 혁명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나>에 의거해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 설명

-육체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부실인간이라 부를 수 없다는 <다>의 '나'의 문제제기는 모든 이가 표준을 벗어나는 나름의 독특성을 지니므로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는 <나>의 인식을 통해 뒷받침된다.

-장애라는 결핍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다>의 '나'의 심리 변화는 나름의 낯설고 의심스러운 점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는 <나>의 인식과 긴밀히 연동한다.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표명한 글로 두 글에서는 소수자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드러난다. 우선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소수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수자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과 지배 상태의 문제이며, 따라서 수적으로 다수인 사람들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와 <나>는 공유한다. 두 번째 공통점은 소수자는 권력의 표준화·획일화 요구를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가>의 소수자는 권력에 포획되기를 거부하고 작은 혁명을 만들어 나가며, <나>의 소수자는 피터 로르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권력에 저항한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가>는 소수자와 다수자를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나>는 모든 사람은 소수자라는 인식에서 다수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가>는 소수자 및 다수자의 범위 설정이 가능하지만 <나>는 범위 설정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둘째는 <가>는 소수자의 집단적 정체성, 즉 소수자되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 <나>는 소수자 모두가 공유하는 개인의 실존적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제시문 <다>는 장애인으로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던 20대 여성 '나'가 마지못해 참석한 장애인모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다. '나'의 심리 변화의 의의를 우선 <가>를 통해 살펴보면, 소수자들에게 그간 결핍으로 여겨졌던 소수자적 특성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내부를 바꾸고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소수자되기가 '나'의 내면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작은 혁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 깊다. 또한 위축된 열등감을 넘어서 장애인을 차별해 온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르는 '나'의 자각은, 나름의 독특성을 지니므로 모든 이가 소수자라는 <나>의 인식과 맞닿는다.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도 지니지 않은 이들은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는 낯선 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나>의 인식이, <다>의 주인공의 심리변화의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